metro® edu
메트로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 답안지 특별판 www.metroseoul.co.kr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오전 서울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수험장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 시작 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15일 오전 서울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앞에서 수험생의 부모님이 기도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2019 대입수능, 60만명 응시

9월 모평보다 어려워… 체감 난이도 높았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5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전년보다 1397명이 증가한 59만4924명이 도전했고, 이 중 재학생은 44만8111명, 졸업생 등은 14만6813명이다.

수능 지원자는 지난해 대비 재학생 비중이 증가했으나, 최근 수시모집 선발인원 증가와 대학들의 수시모집 최저학력기준 미적용이 증가함에 따라 결시율이 상승 추세다. 높은 결시율은 수험생들의 상대평가 영역 성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능 전체 영역 결시유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10.5%를 기록했다. 이날 1교시 국어 결시율은 9.48%로 전년(9.46%)보다 소폭 상승했다.

수능 주요과목인 국어와 수학의 경우 전년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어렵게 출제돼,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어 영역의 경우 현직 교사와 입시업계 분석을 종합하면, 고난도 문항은 26번, 31번, 42번, 11번이 꼽힌다. 국어는 어렵게 출제됐던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더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9월 모의고사보다 어려워 수험생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34점(만점자비율 0.61%)으로 어려웠다. 올해 국어 1등급 구분점수(등급컷)가 지난해보다도 낮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수학 영역 고난도 문항은 21번, 29번, 30번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수학 영역의 경우 작년 수능과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다. 신유형 문제도 출제돼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만기 판곡고 교사는 20번, 21번, 29번, 30번 문항을 어려운 문항으로 꼽고 이 문항 해결 여부에 따라 등급이 갈릴 것으로 내다봤고, 풍문고 손태진 교사도 20번, 29번, 30번 문항을 지목해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로 분석했다.

1교시 국어영역 오탈자는 33~35번 관련 지문과 보기의 '봄을 바라보고'가 '봄을 바라고'의 오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원 측은 해당 오기를 시험지 인쇄 이후 발견했고, 해당 오기가 문제풀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입시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오기가 시험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능 직후 문제나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은 19일 18시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전용 게시판에 접수할 수 있다. 평가원은 26일까지 이의신청 심사를 벌인 뒤 이날 17시 최종 정답을 확정해 발표한다. 내달 5일 수험생에게 전달되는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된다. 단 절대평가인 한국사와 영어영역은 등급만 표기된다.

한편, 수시모집에 최종 합격했거나 질병, 군입대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응시할 수가 없거나 응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환불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한 수능 응시 수수료 60%를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신청 기간은 19일~23일까지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오전 부산 동래구 중앙여고에서 한 수험생이 휴대전화기 제출을 위해 이름을 적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1190개 시험장서 일제 시험
재학생 45만, 졸업생 15만명 도전
수시 선발 증가 등에 결시율 상승

국어,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어려워
수학, 신유형 등장… 체감난이도 ⬆

19일 18시까지 이의신청 접수받아
평가원, 26일 17시 최종 정답 확정

"고등학교 교육 내실화 위해 기본 충실, EBS 연계 70%"

이강래 수능 출제 위원장

수능 출제경향 밝히는 이강래 위원장. /연합뉴스

이강래 2019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전남대 교수)는 15일 "올해 수능은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해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당도 높은 문항 출제를 위해 이미 출제된 내용이라도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문항의 형태와 발상, 접근 방식 등을 일부 수정하여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어 영역과 영어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출제했다"며 "수학 영역과 기타 영역은 개별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했다"고 말했다.

또한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의 경우, 기본 소양 평가를 위해 핵심내용 위주로 가급적 평이하게 출제했다"고 덧붙였다.

문항별 배점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상의 중요도, 문항의 난이도, 풀이에 필요한 사고수준,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배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전년과 같은 출제기조를 유지하려 했다"고 말했다. 전체적인 난이도와 관련해선 "예년과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출제위원장은 EBS 수능 교재의 영역·과목별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어영역은 71.1%, 수학은 70%, 영어 73.3%, 나머지 탐구·외국어 영역은 70%가 연계됐다. /이범종 기자 joker@